

운동회의 기억: 해방이후 초등학교 운동회를 중심으로

오성철(吳成哲)*

논문 요약

이 글은 초등학교 운동회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운동회의 역사적 기원과 한국 교육에서의 운동회의 변천사 및 그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기억을 살펴보고, 운동회가 갖는 양면성에 대한 사회사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운동회의 양면성에 주목한다. 운동회는 국민국가가 통제하는 국가교육에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규율 장치의 하나로 고안되고 정착된 학교 행사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운동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아동과 성인, 지역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비일상적인 잔치 혹은 축제로 기억되고 있다. 운동회에 대한 기억 속에서 가족·지역공동체 세계의 유대감에 대한 향수, 개인주의적 경쟁과 능력주의 이전에 존재했던 평등한 놀이세계에 대한 향수를 엿볼 수 있다.

주요어: 운동회, 기억, 규율장치, 근대교육, 특별활동

I. 서론

교육학 내에서 초등학교 운동회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그 교육적인 의미와 운영 프로그램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운동회의 역사적 유래를 탐색하거나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볼 때, '국민국가', '국민교육' '규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을' 개념과 결합하여 운동회가 국민교육 내에서 수행하는 규율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운동회를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의 신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규율 장치로 규정하는 시도가 그것이다. 운동회를 "국가의 엘리트들이 그 이데올로기 장치인 학교라는 공간에 채워 넣으려고 했던 국민의 신체를 둘러싼 전략이 가장 집약적으로 발동된 장"(吉見俊哉, 2007, p.20)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그 한 예이다. 운동회, 특히 국민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장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서 전개되는 운동회의 형식과 내용에는 국민국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애초에 운동회라는 독특한 교육형식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 역시 후술하겠지만 국민국가의 출현 및 국민 형성 과정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운동회는 단순히 신체 활동과 스포츠의 경연으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국민의례와 결부되어 진행되며, 그 세부 종목에도 국가 이념과 결합된 활동 종목이 포함되곤 한다. 운동회를 국민국가의 규율 장치의 하나로 파악하는 시도는 분명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운동회와 관련하여 이상과는 매우 다른 또 하나의 이미지가 존재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1980년에 초등학교(당시의 명칭으로는 국민학교) 운동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어른들에게 **어렸을 때의 즐거웠던 추억**(방점은 인용자: 이하 동일)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학교 시절의 운동회에 대하여 말한다. [...] 가을 대운동회 전날 밤은 즐거운 조바심으로 밤잠을 설치기 마련이고 아침밥까지 제대로 먹지 않은 채 일찍부터 서두르게 되는 날이다.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만국기가 펄럭이고 말끔하게 체육복을 차려 입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온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점심을 싸들고 학교에 가느라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달리고 노래하고 즐기는 **가장 흥겨운 잔치날**인 것이다(박태규, 1980, p.36).

위의 회고에 따르면 운동회는 그것을 경험한 아동들뿐만 아니라 운동회에 학부모이나 지역민으로 참여한 성인들에게도 '즐거웠던 추억'이자 '가장 흥겨운 잔치날'로 '기억'되고 있다. 기억 속에서 운동회는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로까지 밝은 이미지로 윤색되어 있다. 이 기억 속에서 국민국가, 국가이념, 규율 등과 같은 측면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요컨대 초등학교 운동회와 관련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는 '사회과학에 의해' '거시적으로' '설명'되는 운동회, 즉 '규율 장치'로서의 운동회이며, 다른 하나는 '경험에 의해' '미시적으로' '기억'되는 운동회, 즉 '잔치'로서의 운동회이다. 운동회에 참여하

는 사람은 후자에서는 그것을 자신의 추억으로 만드는 주체이지만, 전자에서는 국민으로 호명되는 객체로 설정된다. 운동회에 관한 이러한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미지의 대립과 충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글에서는 먼저 운동회의 역사를 간단히 검토할 것이다. 일본 근대교육의 전개과정에서 운동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계기에 의해 출현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대만 그리고 조선에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 운동회의 도입과 전개 과정이 갖는 독특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것은 애초에 식민지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던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근대 교육체제 형성 과정에서 출현한 역사적 내력이 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가 본격화되며 이 선구적 경험이 좌절되고 운동회가 식민지 교육의 틀 안에서 정착하는 역사적 과정이 전개되었다. 다음으로 해방 이후에 초등학교 운동회가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지속되고 변모되었는지를 단편적인 몇몇 자료를 근거로 소묘하듯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일반 민중의 기억을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운동회를 둘러싼 이미지의 대립, 즉 '규율장치' 대 '잔치'라는 이미지의 대립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시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글을 매듭짓고자 한다.

II. 운동회 역사

근대교육에서 운동회의 기원 및 확산 과정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은 운동회가 출현한 것은 19세기 말 근대 국민교육의 출현과 시기를 같이 한다. 그런데 그것은 조선-한국-에서만 고유하게 독자적으로 출현했다기보다는 동아시아¹⁾라는 지정학적 영역을 무대로 하여 전파되고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동아시아-최소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에 한정할 때-에서 백년 이상의 시간 동안 전개된 초등학교 운동회를 살펴보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공통성과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근대교육사에서는 1874년 해군병학료(海軍兵學寮)에서 경투유희회(競鬪遊戯會)가 개최된 것이 최초의 운동회로 알려져 있다. 서구 교육의 모방으로 출발한 일본의 운동회는 메이지 초기에는 중등 이상의 학교에서 엘리트들의 아마추어 스포츠경기적 성격이 짙었으나 1880년대

1) 여기서 동아시아란 구체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 세 지역을 가리킨다. 이 세 지역은 1945년 이전에 일본 제국에 속해 있었으며 제국의 지배와 피지배 구조 안에서 문화적으로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고 이 점은 학교 운동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후부터 소·중학교에서 단체경기 및 병식체조 등이 강조되는 지역 단위의 행사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에 운동회는 “단순히 학교 행사로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행사장의 장식에 천막과 국기 그리고 만국기가 필수품이었으며, 척어봉독과 기미가요 취주 합창이 장엄한 의식으로서 거행되는 등 국가 행사로서의 색채가 짙었다”(吉見俊哉, 2007, p.25). 19세기 말에는 몇몇 학교가 학교 밖의 장소 등에서 공동으로 거행하는 ‘연합운동회’ 그리고 ‘원족운동(遠足運動)’이 주를 이루었으나 1900년대부터는 운동회가 개별 학교의 운동장에서 독립적으로 거행되고 지역민의 축제적 성격이 강화되며 동시에 유희적 종목이 늘어나게 된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에는 군사적 색채가 짙어지고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에 돌입할 무렵이 되면 운동회는 드디어 온통 군사적 색깔로 덧칠해지게 된다”(平田宗史, 2007, p.129).

이와 같은 일본 근대교육의 운동회 전개과정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식민지 대만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재현된다. 1896년 12월 12일, 대만의 국어학교제일부속학교에서 최초로 운동회가 거행되었다. 그 내용은 교사가 아동들을 인솔하여 학교 밖의 특정 장소로 이동하고 그 곳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이른바 ‘원족운동’이었다. 운동회는 이후 원족운동→연합운동회→개별 공학교에서의 독립 운동회라는 식으로 일본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식민지 대만 사회 내에 정착되어 갔으며, 1930년대 후반 이후의 군사적 색채 강화 역시 일본과 동일한 흐름이었다. “대만의 학교 운동회의 거행은 비록 일본보다는 십년 남짓 뒤늦었지만 원족운동의 과도기가 시작되었고 거행 방식이나 규모에서는 매우 빨리 일본 내지(內地)의 운동회와 같은 보조로 발전했다”(許佩賢, 2005, p.299). 즉 대만에서 운동회의 역사는 근대교육이 식민지 교육의 형식으로 도입되어 정착하는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그에 대해 대만인들은 저항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조선의 경우에는 초기 운동회의 전개 과정에서 대만과는 조금 다른 과정이 전개되었다. 조선 최초의 운동회는 1896년 5월 2일 화류 형식으로 실시된 관립영어학교 운동회였다. 교사가 아동들을 인솔하여 학교 밖으로 이동한 후 당시 용어로 ‘화류(花柳)’라 했다. 운동을 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식이었다.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대만의 최초의 운동회와 같은 ‘원족운동’의 형식이었다. 이후 관립소학교에서의 ‘연합운동회’ 형식이 정착하고, 군사훈련과 단체경기, 유희적인 내용이 강화되면서 운동회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신문매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소개하였으며 정부 역시 충군애국의 이념 하에 관공립학교 연합운동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예컨대 고종은 1908년 5월의 관사립학교 연합운동회에 직접 참석하여 관람한 후, 크게 만족하여 상품을 내린 적도 있었다. 운동회는 국가의례와 같은 형식을 갖추게 되었고, 그 장소도 병사들의 훈련장소인 훈련원으로 선정되었다. 김성학(2009)은 식민지기 이전 운동회의 특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 관공립학교 운동회를 통해 학생들은 충군애국의 국민으로 '훈련'되어 갔다. [...] 한 나라의 수도에서, 새로 설립된 대표적인 신식 관공립학교들이 연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수많은 국내외 고위관료와 일반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기대와 찬사를 받으며 진행된 학교운동회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 학교운동회에 정부와 독립협회가 관여하면서 운동회는 처음부터 국가의례와 같은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틀 속에서 학생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으로 만들어져 갔다(김성학, 2009, p.90).

운동회의 형식과 시기 등에서 대만과의 유사성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에서의 운동회가 애초부터 식민지 교육의 이식 과정의 일부로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그 내용에서 일본 근대교육 및 대만의 식민지 교육에서의 운동회와 공통점이 적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강제적인 이식의 결과가 아니라, 자율적인 학습과 모방의 결과였다. 달리 말하여 당시 조선의 운동회를 통해 기르고자 했던 주체는 '일본제국의 신민'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신민(혹은 국민)'이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1908년 이후 조선에 대한 일제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통감부는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내정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관공사립학교 연합운동회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음 사료를 보자.

금일의 급무는 한인을 우선 의식(衣食)에 곤궁하지 않게 하고, 그런 후 그 능력을 진전시키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헛되이 독립을 주장하고 애국을 부르짖으며 유식(遊食) 타면(惰眠)함은 국가를 위해 하등 이익이 되지 않는다. 최근 학교 운동회가 여러 곳에서 행해지는데 이처럼 부박한 방법으로 애국심을 발동시키려 함은 심히 우려할 만한 것이다. **학교운동회는 국가 방어 상으로는 하등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이를 장려하여 배일주의를 고취시키는 악책 졸책은 하등 한국을 위해 이익이 되지 않는다. 헛되이 학생생도와 일본 병사 간의 충돌을 일으킬 뿐이다(伊藤博文, 1908, pp.23-24).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발언이다. 일본 근대교육에서 '충군애국의 신민'을 기르기 위한 장치로 고안되고 보급되었던 운동회가 조선에서는 '애국심'을 발동시키는 장치로 확산되자 오히려-혹은 바로 그런 까닭에-저지하려 한 것이다. '문명화' '근대화'를 표방하며 조선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통감부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인 운동회의 '근대성'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의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는 1900년대 후반 사립학교 중심의 교육구국운동에 대한 탄압과 식민지 교육의 이식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결과적으로 조선에서 운동회는 단기적으로는 위축되고 저지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학부(學部)의 보고를 보자.

당초 학교의 경영이 바로 한국의 현상을 타파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여 **왕성하게 나팔을 불고 종고를 울리거나 혹은 병식제조, 연합운동회 등 시위적 행동을 감행하고 또는 교내에서 시사를 논의하는 등 불온한 현상이 매우 심했으나**, 당시 당국자는 이는 결코 청년 자제를 선량하게 선도하는 소이가 아니며 도리어 그들의 전도를 그르치고 가국을 위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점을 간곡하게 경고하고 학교의 경영을 저실은건하고 교육의 본지에 적합하게 하는데 노력하였다(學部, 1910, p.68).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고안된 운동회에 어떠한 국가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투영되는가에 따라 그것이 보급·확산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지·억압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근대 학교의 운동회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다. 운동회는 그것이 최소한 국가 권력의 이념적 틀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존립·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제약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통감부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억압된 운동회는 1910년 이후 식민지 교육에서 다시 부활한다. 다만 대한제국기의 연합운동회와 같은 민족주의의 이념적 측면은 거세하고 그것을 제국의 신민을 기르기 위한 신체 규율 장치로 다시 전유하는 과정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기 초등학교-보통학교-운동회 전개과정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1930년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의 운동회 프로그램 자료를 예시한다. 1930년 9월 23일에 개최된 추계 운동회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午前之部

開會辭 校歌合唱 1.聯合體操 2.綱引 3.五十米 4.方形變脚競走 5.體操·遊戯(靴がなる) 6.抽籤競走 7.バスケットボール 8.ハンドボール 9.五十米 10.達磨送り 11.遊戯(星) 12.戴囊스プーンレース 13.遊戯(お家忘れて) 14.體操·遊戯(螢のお宿) 15.五十米 16.遊戯(椰子の實, プロミナード) 17.旗送り 18.大球運び 19.百米 20.方形ドッジボール 21.遊戯(兎の餅つき) 22.스プーンレース 23.ドンガン競走 24. 케이스링그ボール 25.二人三脚競走 26.體操·遊戯(故郷の空) 27.輪抜け 28.遊戯(昇る旭) 29.五十米 30.コーナーボール

午後之部

31.綱引 32.百米 33.鈴割り 34.體操·遊戯(飛行機) 35.魚釣り 36.遊戯(おはやう) 37.遊戯(海·人生の歡喜) 38.五十米 39.十字形リレー 40.紅葉狩 41.大球ころがし 42.體操 43.百米 44.遊戯(胡蝶·薔薇の精) 45.揭示競走 46.五十米 47.遊戯(噴水) 48.體操 49.繩跳競走 50.綱越レポール 51.遊戯(とんび) 52.五十米 53.追入れボール 54.遊戯(クワトリアル) 55.全校紅白リレーレース 56.魚釣り 57.抽籤競走 58.大球ころがし 59.ダンス(校歌) 60.聯合體操 閉會之辭(京城女子公立普通學校, 1931, pp.65-75).

종목의 이름만으로는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하루 동안 진행된 60개 종목 중에서 ‘유희’ 타이틀이 붙은 것이 1개 종목이고, 50미터 또는 100미터 달리기와 10개 종목 그리고 그 밖에 이인삼각이나 줄다리기, 큰공굴리기 등도 보인다. 학생 외에도 오후에는 졸업생(56번), 내빈(57번), 직원(58번) 등이 참가하는 종목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상품도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종목들을 보더라도 근대 일본이나 식민지 대만에서 전개된 운동회와 형식 및 내용에서 뚜렷한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는 노골적인 국가주의적·군국주의적 요소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1930년대 후반 이후 전시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운동회의 내용에서 그러한 요소들이 강화되었다. 예컨대 1941년 이후 ‘국민학교’ 시기 운동회에서는 ‘비행기폭격’ ‘백병전’ ‘장애물넘기경쟁(短繩跳競爭)’ ‘육탄전’ ‘들것운반경주’ 등의 종목이 실시되었다(金村明吉, 1941, pp.53-56).

이상의 자료들은 국가가 운동회를 국민의 신체 만들기를 위한 규율 장치로 활용하려 한 근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운동회의 ‘국가적 역사’를 보여준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운동회에는 그러한 ‘국가적 역사’로 ‘설명’되기 어려운 미묘한 측면도 또한 존재했다. 다음 자료를 살펴보자. 1935년에 학교 운동회와 관련하여 일본과 조선의 교육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가졌던 좌담회 기록이다.

박(경기): [...] 학교 운동회는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실체를 보면 여기서 조금 탈선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쓰카모토(전북): [...] 지방에서는 별도로 위안 기관이 없으므로 운동회를 1년에 한 번 있는 오락, 즉 위안으로 생각하므로 학교장은 학교체조를 도입하려 해도 거의 도입하지 못합니다. [...] 히카사: 나는 목포에 일 년 있었습디만, 그런 곳에서도 역시 일 년에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런 기회에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밤을 새워 명석을 깔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목포에서도 그러하니 농촌으로 들어가면 그런 경향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환경에 따라야 하고 학교와 가정의 친화 용목이라는 점에 따라야지요. [...] 우메사와: 운동회를 오락과 분리시키고 학교체조의 본질로만 돌아가는 것은 조선의 실정으로 보면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編輯部, 1935, pp.77-91).

각 지역의 보통학교 훈도들이 평가하는 운동회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들인데, 공통된 점은 운동회가 학교체조 교육의 성과를 확인한다는 이른바 ‘교육적’인 궤도를 ‘탈선’하여 지역 민중의 오락이나 위안에 치중되고 있는 경향을 문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운동회를 오락으로 전유하려는 ‘조선의 실정’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딜레마에 가득 찬 인식이다. 식민지 시기에도 운동회가 조

선충독부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이 의도한 바대로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 측면이란 다름 아닌 조선인들이 그것을 일종의 ‘유희’ 또는 ‘잔치’로서 전유하는 측면이다.

예컨대 식민지기 조선의 보통학교 운동회에 관한 다음 회고를 보자.

나의 보통학교 시절 운동회는 푸짐한 잔치분위기의 운동회이었다. 1928년 10월 초에 어느 날이었다. 서울 제동의 비좁은 골목길은 마치 장이 선 거리와도 같이, 사람이 봄비는 잔치집 마당과 같이 흥겨운 풍경이었다. 제동보통학교 운동장의 상공에는 울긋불긋한 만국기가 펄럭이고 학교 주변은 딱총소리와 빵장수의 피리소리로 요란스러웠다. 아침에 등교하면 오후에 귀가할 때까지 일체 학교대문을 못나가는 엄한 학교규칙이었던만 이 날만은 학교 대문이 온 종일 열리어 학부형과 구경꾼 그리고 장사꾼들로 학교 문 앞은 북적거려었다(정병학, 1978, p.29).

1928년 시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보통학교 운동회 역시 만국기가 펄럭였으며 학부형과 구경꾼, 장사꾼이 몰리는 ‘푸짐한 잔치 분위기’였다고 기억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과 대만 등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떠할까. 요시미 순야는 근대 일본 교육에서 운동회가 “많은 지역들의 생활세계에서 국가적 의식 이상으로 마을축제로서 수용”(吉見俊哉, 2007, p.54)되었던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1945년 이전에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대만의 경우도 유사하다. 쉬페이셴(許佩賢)의 연구에 따르면, 1900년대 이후 식민지 대만 공학교(公學校)에 정착하여 확산된 운동회 역시 ‘마을의 구경거리(壯闊里之觀瞻)’였고 즐거운 축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許佩賢, 2005, p.318). 이처럼 근대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운동회가 ‘잔치’ 혹은 ‘축제’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노골적인 ‘규율’의 강제를 특징으로 하는 일본 근대교육 및 식민지에서 전개된 식민교육 내에서도 국가가 ‘위로부터’ 파악하는 운동회와 ‘아래로부터’ 보는 민중의 ‘기억 속의 운동회’ 간의 균열과 경합이 전개되었음을 암시한다.

Ⅲ. 해방 이후 한국의 운동회

그렇다면 해방 이후 운동회는 어떻게 변모했을까.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일본제국이 해체되고 조선과 대만은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다. 이후 이전의 제국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국민국가의 구조와 질서가 성립하게 되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당연히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가 자체가 전면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식민 지배권력이 와해되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초래한다. 예컨대 운동회와 관련하여 보자면 운동회 개식 때의 국가적 의례에서 합창하는 노래는 ‘기미가요’에서 ‘애국가’로 바뀌었고, 일제히 경례해야 하는 국기는 ‘히노마루’에서 ‘태극기’로 바뀌었다(오성철, 2008). 하지만 운동회라는 교육형식 자체가 혁파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는 않았다. 국민의례로 시작하는 운동회의 주종목은 여전히 달리기, 릴레이경주, 줄다리기, 기마전, 기뻐기, 장애물경주, 그리고 각종 유희 경기 등이었고 모든 학생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경쟁하는 형식도 유지되었다.²⁾ 해방 이후 운동회의 실태에 관한 별도의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식민지기에 학교행사의 주요한 일환으로 정착했고 일종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운동회가 해방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식을 유지하면서 지속되었다는 것이다(李壽南, 金洋坤, 1957; 李丙緯, 姜求成, 1961).

운동회 실시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일종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여건과 재량에 맡겨졌다. 그런데 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상품 준비를 포함하여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금 확보가 중요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식민지기에도 운동회 실시는 학부모의 기부금 찬조를 주요한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며(윤석중, 1978), 이는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매년 정기적으로 운동회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며, 경우에 따라 운동회 개최 사정은 달랐던 것 같다.

신문에 게재된 운동회 관련 기사를 추적해 보면, 예컨대 1965년의 경우 서울시내 160개 국민학교의 대부분이 운동회를 폐지했다고 한다. 그 주된 이유는 2부제, 3부제 수업으로 아동수가 많아 운동장에 한꺼번에 모일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운동회비 징수의 어려움이 었다(『동아일보』 1965.5.4.). 농촌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서, 1966년 강원도 묵호 지역에서는 기부금이 아니라 일종의 잡부금으로 학생 1인당 90원의 운동회비를 징수했던 기록이 있고(『경향신문』 1966.10.22.) 1970년대에 들어서도 운동회 명목의 잡부금 징수 문제가 간혹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예컨대 1973년도에 강원도 강릉의 경우, 정부가 잡부금 징수를 금지한 결과 운동회가 실시된 학교는 전체 54교 중에서 6교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은 바꾸어 말하면, 해방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국가가 운동회 실시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심지어 1975년 한국 정부는 이른바 서정쇄신 시책에

2)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식민지기에는 ‘홍군’과 ‘백군’이었으나 해방 이후에는 ‘청군’과 ‘백군’이 되어 ‘빨간 색’이 ‘파란 색’으로 바뀌었다.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변화는 반공체제의 형성 및 ‘빨간 색’과 공산주의 간의 함의적 연관을 의식한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따라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걷는 폐단을 없앤다는 이유로 아예 국민학교 운동회의 폐지를 지시한 일조차 있었다. 그리고 이 조치는 운동회 실시를 요구하는 민간의 여론이 고조되는 계기가 된다. 뜻하지 않은 반발에 부딪힌 정부는 결국 이듬해인 1976년 9월에 운동회의 부활을 다시 지시했다(『경향신문』 1976.9.3.). 다음 신문 사설을 통해 운동회를 둘러싼 당시 사회적인 여론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운동회를 - 그들의 꿈과 즐거움 앗지 말라> 그동안 중단됐던 국교운동회가 다시 부활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운동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상품을 주어야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문교부가 올해부터 다시 운동회를 열 되 상장만 주고 상품은 주지 말라고 지시한데서 비롯된다. 추측컨대 이는 이에서 초래되는 학부모들로부터의 금품징수 등의 부조리를 제거하자는데 그 근본의도가 있는 듯하다. [...] 누구나 알고 있듯 **국교운동회에는 어린이들의 다른 것에 비길 수 없는 즐거움과 부푼 꿈이 있다. 한데 운동회에서의 상품 폐지는 어린이들이 부푼 꿈과 즐거움을 송두리째 앗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동아일보』 1976.9.11).

잡부금 징수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한 운동회를 다시 부활시킨 것은 ‘다행’이지만, 운동회에서 ‘상품’은 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동들의 ‘부푼 꿈과 즐거움’을 빼앗는 행정조치라는 비판이다. 초등학교 학교행사의 하나에 불과한 운동회에서 학생들에게 상품-이래야 공책 아니면 연필 등 저렴하고 단순한 학용품에 불과한 것이지만-을 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주요 일간지의 사설 주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운동회의 의미는 국가의 규율장치라기보다는 이미 민중과 아동들이 자신의 것으로 전유한 ‘잔치’로 설정되어 있고 그것을 부활시킨 동력은 일차적으로 민중들의 요구에 있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이 사설을 발표한 지 사흘 후에 또 다시 초등학교 운동회에 관한 사설을 신는다. 그 계기는 1976년에 문교부가 운동회 부활을 지시하면서 그 종목에서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데 있었다.

<국교운동회 변질부활. 동심 외면한 가마니짜기 등은 재고를> 운동회는 시골의 운동회라야 제 맛이 난다. [...] 시골의 운동회는 어린이들이 그저 달리고 뛰는 대회라기보다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향유하는 축제의 광장으로 더욱 뜻이 깊고 보람도 있는 그러한 행사이다. [...] 그런데 **문교부의 지침은 정말 찾아야 할 것은 외면하고 생판 엉뚱한 데로 운동회를 몰고 가는 듯해서 서운하다.** 보도에 의하면 새마을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가마니짜기 새끼꼬기가 거

론이 되고 총력안보 국방경기로는 대피운동 모래주머니 나르기 화생방대비경기 등이 고안되고 있는 모양이다. [...] 어린이의 꿈, 어린이의 정서를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처럼 부활된 운동회에서 겨우 한다는 것이 새끼나 가마니짜기, 화생방대비경기 등 살벌하고 딱딱한 종목을 그것도 획일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동아일보』 1976.9.14).

국가는 민중의 요구에 따라 운동회를 부활하면서도 그것을 국가의 규율장치로 전유하려 시도했다. 총력안보와 국방 심지어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책을 위해 운동회 종목을 국가주의적으로 전환하는, 마치 식민지 말기 전시체제의 동향을 방불케 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 사설은 '가마니짜기' '대피운동' '화생방대비경기' 등의 '살벌하고 딱딱한 종목'을 '생관 엉뚱하게' 강요하면서 운동회의 축제적 성격을 박탈하려는 국가에 대한 민중의 반발과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른바 권위주의적인 유신 체제 하에서도 국가의 규율 장치로서의 운동회와 민중 및 아동의 축제로서의 운동회는 경합하고 있었다.

이 경합의 과정에서 국가는 표면적으로는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국가의 이러한 조치 이후 1970년대 말의 초등학교 운동회는 적어도 그 종목의 면면으로 볼 때 국가 이데올로기의 종합 전시장으로 변모했다. 예컨대 1978년 당시 국민학교 운동회의 종목에 관한 어느 조사를 보자. 이는 경상북도 내 전역의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운동회의 종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이다(노영구, 1978).

조사에 따르면 종목은 트랙 종목과 필드 종목으로 나뉘어지는데, 트랙종목 중에서 반공주의 등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김일성잡기달리기, 최후의 일각까지, 적진돌파, 땅굴폭파, 안보경기, 백마고지' 등이 눈에 뜨인다. 필드종목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 관련 종목이 훨씬 다채롭다. 아래 열거된 것은 당시 경북 내의 국민학교에서 실시된 필드 종목을 나열한 것이다.

애국주의: 조국찬가, 민족의 얼, 나의 조국, 민족의 물결, 전진하는 나의 조국, 나라사랑, 자유의 종, 우리는 대한의 꽃, 우리나라 금수강산, 영광영광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의 딸 등

통일: 조국통일, 통일의 염원, 통일기원, 남북통일, 통일을 이룩하자, 통일의 이념, 통일의 꽃, 우리의 소원, 통일 아리랑, 북진통일 등.

새마을: 새마을잔치, 새마을 새나라, 새마을일꾼, 새마을의 꽃, 새마을대행진, 꽃피는 새마을, 새마을만세, 우리도 잘살아보세, 근면자조협동, 새역사 창조, 새마을 새정신 등

총력안보: 총화의 꽃, 총화유신, 총력안보, 유비무환, 총화의 꽃다발, 유신의 물결, 총화행렬 등

분식장려: 점심잡수세요, 내가먼저 혼분식, 혼분식으로 다진 국력, 혼분식 여행, 즐거운 혼분식, 공중전쟁, 점심탄 폭발, 혼분식시간 등.

경제관련: 저축, 저축왕, 티끌모아태산, 알뜰살뜰모으세, 땀흘려모으세. 소득증대, 올해도증산, 모
오고 모으자, 땀흘려 모으세, 풍년놀이, 올해도 풍년, 풍년이 왔네, 풍년잔치, 새마을풍
년, 얼시구 풍년

민방위훈련관련: 민방위운동, 모범민방위대, 나는 민방위, 용감한 소방수, 우리는 소방대, 소방대
출동, 예비군만세, 새마을소방수 등

반공관련: 반공훈련, 간첩신고, 간첩을 잡자, 간첩은 내가먼저, 간첩생포, 간첩색출, 김일성교수형, 김
일성혹은 내가 뎀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 멸공통일, 안보경기, 초전박살, 처부수자공산당

국방관련: 자주국방, 북진통일, 백두산에태극기, 백마고지 탈환, 후방은 이상없다, 적기를 뺏아라,
태극기는 내 것(노영구, 1978)..

이상에서 열거한 종목들은 유신체제 하에서 강조된 애국주의, 반공주의, 군국주의, 국책 선전
등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종
목의 이름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한 예를 들어 보자.

박 터트리기 게임이 시작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던져도 도무지 맞출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
만 그 중에도 나보다 키가 큰 아이들은 잘도 맞추기만 했습니다. [...] 이윽고 우리 편 박이 터졌습
니다. 흥부의 박처럼 보석이 가득 숨겨진 줄 알았는데 터진 박에서 튀겨져 나오는 것은 ‘즐거운 점
심 시간’이란 종이말이[...]³⁾

운동회에서 흔히 포함되는 유희경기 종목으로 ‘박터트리기’가 있었다. 대나무 광주리 두 개를
종이로 붙여 박을 만들고 그 안에 오색종이나 비둘기, 혹은 표어 등을 넣고 아동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 콩주머니로 먼저 터트리기 게임을 하는 형식이었다. 위의 사례에서는 오전 종목이 끝나
고 점심 시간을 알리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종목이 1970년대 후반에는 주로 앞의 자료에 언급된
‘분식장려’ 관련 종목으로 전유된다. 박 속의 ‘즐거운 점심시간’이라는 문구가 ‘즐거운 혼분식’으
로 바뀐 것이다. ‘박터트리기’라는 관행적인 유희종목을 국가의 혼분식 권장 정책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전용하려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보다 노골적인 이념적 색채를 드러내는 또 다른 종목의 예를 들어보자.

<매려잡자 김일성(저학년편)> ○ 청·백 두 팀으로 갈라서 각각 2열 횡대로 마주 선다. ○ 시작
신호에 따라 두 아동이 손을 잡고 백선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서 가지고 간 콩주머니 두 개로 김일
성 오뚜기를 때려 맞추어 떨어뜨린 다음, 콩주머니를 주워가지고 출발선으로 돌아와 다음 사람에게

3) <http://cafe.daum.net/cheong24/I5CA/15>

콩주머니를 이어준다. ○ 오뚜기 옆에는 보조자가 한 사람 있어서 떨어진 오뚜기를 올려 놓는다. ○ 마지막 사람까지 먼저 끝나는 편이 승리한다(박태규, 1980, pp.36-37).

‘때려잡자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종목은 이념적인 내용으로 보면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회의 이데올로기적 규율장치로서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을 통해 사람들은 과연 ‘반공주의의 전사’로 일방적으로 호명되고 주도되었던 것일까. 비록 1970년대 후반에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종목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국가가 운동회를 이데올로기적 규율 장치로 전유하려는 시도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지시에 따라 운동회 때 내걸린 각종 이데올로기적 표어 아래에서 또 다른 드라마가 전개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⁴⁾

그렇다면 해방 이후 초등학교의 운동회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아동, 학부모, 지역민-에게 기억되는 운동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IV. 운동회의 기억

해방 이후 초등학교 운동회에 관한 일반 민중의 기억을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다. 기억을 말해주는 사료 자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기억 자체가 매우 개별적이고 주관적이며 단편적인 형태로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역사학 등에서 통상 활용하는 문서로 기록되고 인쇄된 문헌자료들도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인터넷 상에 개인 카페나 블로그 등에 사적으로 등재한 개인적인 기록들 쪽이 훨씬 풍성하다. 이들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운동회의 기억들은 물론 개별적인 것들이고 또 내용에서도 다채롭지만 그럼에도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의 대표적인 두 인터넷 검색 엔진인 다음(www.daum.net) 그리고 네이버(www.naver.com) 등은 각기 동호인 카페와 개인 블로그를 등록하여 운영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1년 3월 24일 현재, ‘운동회 and 추억’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바에 따르면 다음 카페는 33,041건, 블로그에는 7,496건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는 6,023건, 블로그에는 10,381건이 검색되었다. 이들 자료는 거의 모두 자신이 학부모나 학생으로서 경험한 초등학교 운동회에 관한 기억을 담고 있다.

4) 예컨대 운동장에서 콩주머니를 던지며 김일성 얼굴이 그려진 오뚜기를 쓰러뜨리던 아이들의 눈빛은 반공주의적 적개심에 가득 차 있었을까. 그 오뚜기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던 간에 사람들은 단지 콩주머니를 던져 맞추던 순간의 즐거움만이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강하게 살아남아 그것을 ‘잔치’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별적 기억을 보여주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의 운동회 관련 회고들은 여기서 매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지만, 거의 대부분 ‘향수(nostalgia)’라고 해야 적합할 만큼 과거의 학창 시절에 대한 몇 안 되는 행복하고 그리운 추억의 일환으로 운동회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운동회에 관한 여러 기억들의 요소와 내용을 예컨대 ‘양적인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운동회에 관한 기억의 요소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 자료를 선정하여 그 기억의 성격을 시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선택한 자료는 한 소설가가 초등학교 운동회와 관련하여 신문에 기고한 글이다.

소설가 최일남(崔一男)은 1980년대 초반 어느 국민학교의 운동회를 참관한 경험을 신문에 위와 같은 글로 남겼다. 조금 길지만, 운동회의 기억과 그 안에 스며든 정서를 엿볼 수 있는 풍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을 인용해 본다.

[...] 그 국민학교 운동회에도 만국기는 펄럭이고 있었다. 폐경기에 접어든 여자의 젓줄처럼 줄아든 우리들의 가슴을 새삼스럽게 부풀게 할 만국기는 나부끼고 있었다. 함성도 있었으며 한껏 즐겁고자 하는 아이들의 싱싱한 동작도 보기에 즐거웠다.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는 소리로 내 소싯적 생각을 들쭉서놓기에 족했다. 비록 울타리 밖에서는 차소리가 요란하고, 눈을 돌리면 아파트군이 학교를 옹위하고 있는 모습이 다소 살풍경하기는 해도, 모처럼 아이들이 일으키는 흥면지까지가 잔칫날을 확인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역시 이 운동회는 어딘가 맥이 빠져있어 보였다. 반드시 그것이 좋아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본부석에는 동네 유지들로 구성되는 ‘내빈석’도 따로 없었으며, **학부형의 8할은 여자들이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없는 운동회였다.** 남자들은 이 시간에도 어음 교환하느라 바쁘고 처자식들의 그런 잔치를 있게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어머니만 참석한 운동회는 문자 그대로 ‘수업의 연장’과도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옛날 운동회는 어떤 형태로든 **풀찌에게도 공책 한 권이나 연필 한 자루는 돌아가게 배려**가 되어 있었는데 이 운동회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았으며 내 생각 탓인지는 몰라도 등수 안에 들어 그런 상품을 타는 아이들도 그다지 ‘희색이 만면’하지는 않아 보였다. **운동회의 피크는 뛰니 뛰니 해도 점심을 먹을 시간이다.** 아이는 아이대로 그리고 오늘의 그 ‘주역’을 따라온 7, 8명의 가족들은 이제 노랗게 물들어가는 포플러나무 밑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재미가 일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운동회는 놀랍게도 그 순서가 없었다. 아이는 많고 운동장은 뱅뱅이 코구멍만 하나까 할 수 없이 운동회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했던 모양이다. 그런 궁색스런 행사나마 하기로 마음먹은 학교 당국의 ‘쾌거’가 장하다 해야 할지. 다만 예나 이제나 변하지 않은 운동회의 ‘품목’이 반가웠다. 줄이 영망이어서 차라리 애교스런 매스게임, 달리기, 바구니에 공 넣기, 줄다리기, 기마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심하게 달라진 세상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게도 이 학교의 운동회를 보고 있지 않았다. 내가 겪은 운동회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 운동회가 가까워 오면 수업은 집어치우고 맨 날 연습만 했다. 스란치마에 뽕족구두만을 신고 다니던 여선

생님이 갑자기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호각을 불어대는 모습도 멋이 있었으며 우리 또래 촌놈들도 운동회를 앞두고는 느닷없이 활기에 넘쳐흘렀다. 그러나 **운동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었다. 집안 식구들도 마찬가지로이며 동네 처녀나 청년들 아니 요즈음 말로 온 '지역사회'가 그날을 고대하면서 슬렁슬렁 슬렁거렸다. 말하자면 그것은 동네잔치였으며 지역문화를 수속하는 역할도 했던 것이다.** 막상 그날이 되면 학교로 향하는 논배미 길은 그런 사람들의 대열로 빼곡 찻었다. 5월 농부가 8월이면 신선이 된다는 계절, 찢어지게 화창한 가을 날씨를 이고 뺏뺏하게 풀 먹인 옥양목 치마를 사각거리며 아낙네들은 길을 재촉하였다. 손에는 애써 장만한 찬합들을 하나씩 들고. 면장이나 지서장이 이날은 교장선생님과 함께 상석을 차지했는데 누가 코치를 했음직한 면장의 축사도 이날만은 그닥 지루하지가 않았다. '에 또'라는 간투사가 적어도 열댓번은 간투(間投)되고 '신체발부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 따위 어려운 말이 섞인 것이 탈이었으나 그것도 즐거운 한 판 놀이를 앞두고는 참아낼 수가 있었다. 자기반 차례가 되어 한두 번 뛰고 나면 점심이었다. 보리가 안 섞인 쌀밥도 그렇지만 평소에는 얻어걸리기 힘든 성찬이 거기 있었다. 갈치꼬랑이 구운 것, 마늘 장아찌, 호박전, 고비볶음 등속이 그렇고 후식으로 나오는 찜고구마, 삶은 계란, 우린감, 밤, 배 등은 우리들을 포식시키고도 남았다. **점심을 먹고 난 오후부터는 아이들 게임보다는 어른들 차례가 많았다.** 희한하게도 되도록 페달을 안 밟아 맨 꼴찌가 일등이 되는 자전거경주(?), 쌀가마 지고달리기 등이 그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남편이 아내업고 달리는 만좌의 웃음을 사는 재미를 안겨주었다. 수줍어서 함께 걷지도 못하던 부부가 이날만은 마음 놓고 업고 업히고 하였다. 그날 밤 집집마다에서는 비린 것이라고는 일 년에 너댓 번 간고등어를 먹인 것밖에 없는 당신의 엉덩짝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는 웃음꽃들이 피었다. 실로 오랜만에 그 웃음의 의미를 헤아리면서. 낮에 찢 고구마를 먹은 탓에 남몰래 방귀를 꾸며 기마전을 끝내면 슬픈 해가 저물고 운동회는 끝난다('어느 국교의 운동회', 『경향신문』 1983.10.19).

이 짧은 글 속에서는 저자가 목격한 대도시지역 아파트에 둘러싸인 80년대의 운동회가 저자의 '소식적' 운동회-아마도 5,60년대 쯤의 운동회일까-와 대비되어 아쉬움과 회한 속에 그려진다. 80년대 대도시 국민학교의 운동회에서도 만국기가 걸려 있고,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는 함성 소리 속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전과 같이 달리기 하고 기마전도 하고 매스게임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그는 느낀다. '운동회라면 모름지기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최일남의 기억 속에 자리잡고 있는 운동회란 어떤 것인가.

첫째, 운동회는 '예외적'이며 '비일상적'인 시공간이다. 그것은 '수업의 연장'이 아니라 '수업하지 않는 날'이다. 책가방도 숙제도 없는 그 하루 동안 아동들은 일상적인 교육과 규율의 틀에서 해방되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회는 학창 시절에 대한 기억 중에서도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과 함께 예외적으로 '즐겁고 신나게 놀았던 날'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주제가 된다.

둘째, 운동회는 학교 밖으로 '열린' 시공간이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은 본관에서 교문까지 운

동장 전체를 만국기가 뒤덮어 축제분위기를 만든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참가하기 때문에 학교만의 축제가 아니라 온 마을의 축제가 된다. 물론 운동회날에는 엿장수, 풍선장수, 장난감장수, 과자장수 등 온갖 상인들까지 몰려들어 그야말로 이렇게 떠들썩한 축제 한마당이 된다.”⁵⁾ 사회적 세계로부터 아동을 분리시켜 감금하고 규율하는 학교라는 고립된 세계가 이 날 하루 동안은 교문을 바깥 세상에 개방한다. 학교는 폐쇄되고 고립된 교육의 장이 아니라 평소에는 학교 교육의 장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열린’ 잔치마당으로 전화한다.

셋째, 운동회는 ‘꼴찌’들의 잔치다. “공부도 숙제도 없고 공부 못한다고 기죽을 일도 없으니 정말 기쁜 날”⁶⁾이었던 운동회날, 학교의 교육이데올로기인 학력에 따른 ‘능력주의’와 ‘경쟁’ 원리는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춘다. 학력경쟁에서 실패한 ‘꼴찌’들도 운동회의 달리기를 통해 자존감을 확인하고 ‘공책이나 연필’ 같은 상을 받는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의 기억은 운동회의 기억에서 필수적인 요소를 이룬다.

넷째, 운동회는 농촌지역 공동체의 잔치다. 학부모, 특히 아버지로 대표되는 대가족이 참여하지 않는 운동회는 맥 빠진 운동회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회는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마을의 공동체적 축제가 된다. 따라서 운동회를 “친척 언니 오빠 분들이 객지 나가서 집에 왔을 때, 손님이 많이 참석 할 수 있는 날”⁷⁾인 추석 다음날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먹고 마시는’ 향연이 축제의 필수적인 요소이듯이 교정에서 가족과 함께 먹는 ‘점심’과 잠상인이 파는 ‘국밥과 술’은 운동회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핵심을 이룬다.⁸⁾ 운동회는 도시화 과정에서 와해되어가는 농촌의 대가족 공동체의식을 다시 환기시키는 공간인 것이다.

요컨대 운동회에 대한 기억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실된 과거에의 향수’가 아닐까. 원자화된 근대 이전에 존재했던 가족·지역공동체 세계의 유대감에 대한 향수, 학력으로 성공과 실패가 판정되는 자본주의 생활 세계의 능력주의 이전에 존재했던 평등한 놀이세계에 대한 향수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기억 속에서 운동회날 만큼은 근대는 전근대에, 국가는 가족에, 능력주의는 평등주의에 일시적으로 자리를 양보한다. 기억 속에서 운동회날 하루만큼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잔치, 가족들과 민중들의 잔치였던 것이다.

5) <http://cafe.daum.net/naver13/C3KU/10>

6) <http://cafe.daum.net/firejbc/Mss0/176>

7) <http://cafe.daum.net/Sbesryu/5FVh/13>

8) 운동회에서 가족들이 함께 하는 점심 식사 시간이 얼마나 핵심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었는지는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돈보기 운동회를 추석 다음날에 열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데모」하겠오. 주로 부모들의 이런 익살스런 성화에 못배겼음인지 화성군 내의 20여 국민학교는 추계운동회를 소원대로 6일에 열었다는 얘기. 현대 학부모들이 추석 다음날을 한사코 고집한 이유는 바로 먹는 문제. 운동회니 뭐니 하면 아무래도 색다른 ‘먹이’를 장만해야 하고 때문에 성가신 수고도 해야 하는데 추석 다음날이면 그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한꺼번에 해치울 수가 있다는 가정경제학적 견지에서”(『경향신문』 1960.10.8).

다만 이러한 기억이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운동회라는 학교행사는 역사사회적인 조건 하에서 변모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다른 운동회의 기억은 주로 한편에서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며 또 다른 한편에는 농촌공동체가 점차 쇠퇴해가는 특정한 조건 속에서 전개된 운동회에 대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농촌공동체의 변모,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모, 맞벌이부부의 등장, 도시지역 2부제 수업, 마을 잔치와 불거리를 대신하는 대중문화의 등장 등으로 인해 운동회 자체가 급속히 변모하게 된다. 그와 함께 지역 공동체의 '잔치'적 성격이 퇴색하면서 그에 따라 운동회의 기억 또한 이 글에서 다룬 것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변모할 것이다. 운동회는 특정한 역사사회적 조건 하에서 동아시아 근대에 탄생하여 정착하고 확산되었지만 바로 그러한 역사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역사'로서도 '기억'으로서도 성쇠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초등학교 운동회의 역사와 그에 대한 기억을 간략하게 검토함으로써 운동회와 관련한 '규율 장치'와 '잔치'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대립되는 이미지의 공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초보적인 시도에 불과한 이 글에서는 향후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일종의 가설로 다음과 같은 시론적 해석을 제시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미지의 대비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은 운동회의 이 두 이미지를 '동전의 양면'이라는 비유를 적용하여 동일한 실체의 양면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A 뿐만 아니라 B'(not only A but also B)라는 어법을 적용하여 말한다면 운동회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잔치'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규율 장치'의 기능과 성격을 갖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해 방식을 좀 더 발전시켜 그 두 이미지 중에 어느 하나에 설명적인 우위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운동회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록 '주관적으로'는 '잔치'로 '기억'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비록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는 '규율 장치'로 작동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이해 방식은 '잔치'와 '규율 장치'라는 운동회의 양면성을 전제로 하면서 전자를 일종의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으로 후자를 실재(reality)로 규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경우 인간의 경험과 기억은 사회 구조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거나 지배되는 종속변수로 간주된다.

그런데 운동회의 '기억'을 이처럼 '과장되고 전도된 허위의식'으로만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해

버리는 것으로 충분할까. 필자는 이와는 다른 이해 방식 또한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운동회의 두 이미지를 병렬적으로 ‘공존’하는 것으로 심지어 ‘허위의식’과 ‘실재’로 규정하여 어느 하나에 설명적 우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가 부단히 서로 ‘경합’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운동회라는 장(arena)에서 예컨대 국가로 대표되는 사회구조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국민으로 장악하고, 훈련하고, 호명하려 하지만, 그들은 그 자장을 벗어나 운동회를 자신들의 놀이와 잔치의 장으로 전유하려 했으며 그러한 역동적인 두 힘 간의 경합 과정이 부단히 전개되었던 것은 아닐까.

운동회에 관한 보통 사람들의 기억에 주목할 때, 적어도 국가는 운동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순조롭게 보통 사람들의 기억을 ‘국민의 기억’으로 회수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사람들은 부단히 그것을 자신들의 축제로 만들려 했다. 아동과 학부모, 지역민들은 운동회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호명의 대상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국가의 규율훈련의 틀을 일탈하려’했다. 운동회라는 장을 둘러싸고 전개된 ‘민’과 ‘국가’의 경합에서, ‘기억’과 ‘역사’의 경합에서 ‘국가’ 혹은 ‘역사’는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없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싸움에서 반대로 ‘보통사람들’ 혹은 ‘기억’이 승리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어른들이 다시 근대적인 생활 세계로 나설 수밖에 없듯이, 운동회가 끝난 다음 날 아동들은 다시 책가방을 싸들고 학교에 등교할 수밖에 없다. 보통사람들은 학교라는 국가적 규율장치 자체를 거부할 수 없었고 거부하지도 않았다. 기억 속에서 운동회를 자신들의 잔치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기억에 위안을 얻고 지나간 학창 시절을 ‘향수’하는 바로 그 순간 학교라는 근대적 규율장치의 존속 자체에 대한 자발적인 승인이 의도하지 않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국가의 역사로 환원되지 않는 사람들의 기억의 잔여변량, 그것으로부터의 일탈의 가능성이 여전히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결론을 대신하여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역사사회적 내력을 지닌 운동회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확산, 정착되고 변모되었는지를 비교사적으로 검토하는 작업 그리고 한국 교육에서 운동회의 전개 및 변모 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우선 확인하는 작업이 보다 충실해질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며, 해방 이후 이른바 산업화 과정에서 운동회의 성격 및 그에 대한 기억이 왜 어떠한 역동에 의해 변모되어 갔는지, 농촌 지역 민중들의 생활세계에서 학교와 운동회는 어떤 의미였는지 등,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도 운동회를 둘러싼 두 얼굴의 경합 자체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하여 개별 민중의 미시적 기억과 국가의 거시적 역사가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 교육체제 및

그것을 둘러싼 사회체제의 재생산 혹은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그 답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 즉 시론적인 문제제기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국내 역사학계에서 국민국가의 역사와는 다른 보통 사람들의 '기억'이 갖는 역사사회적 의미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피에르 노라 등에 의해 시도된 이른바 '기억의 장소'(les lieux de mémoire)에 관한 연구 성과들도 활발하게 번역되고 있다(노라, 2010). 기억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역사적 접근을 통해 사회구조나 국민국가에 의해 온전히 회수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기억의 소세계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운동회라는 특수한 학교 행사와 그를 둘러싼 기억만을 다루는데 그쳤다. 그 밖에도 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기억의 소세계는 보다 풍부하고 광범하다. 교육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규제하는 힘과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사의 접근 방식만이 아니라 교육을 몸과 머리,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보다 활발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학 (2009), 「근대 학교운동회의 탄생: 화류에서 훈련과 경쟁으로」, 『한국교육사학』 제31권 제1호, pp.57-94.
- 노라, 피에르 (2010), 김인중 외(역) 『기억의 장소-공화국』, 나남.
- 노영구 (1978), 「운동회 종목과 프로그램 용어에 관한 조사분석(2)」, 『논문집』 제13집, 대구교육대학교. pp.347-357.
- 박태규 (1980), 「운동회 도중 불끄기 작업」, 『새교실』, 1980년 9월호, pp.36-37.
- 吉見俊哉 (2007), 「국민 의례로서의 운동회」, 요시미 순야(편) 이태문(역) 『운동회-근대의 신체』, 논형.
- 윤석중 (1978), 「즐거운 거짓말」, 『새교실』, 1978년 9월호, p.28.
- 李丙緯, 姜求成 (1961), 『運動會의 企劃과 運營 : 各鍾놀이 指導要嶺』, 春潮社.
- 李壽南, 金洋坤 (1957), 『새로운 運動會의 企劃과 運營』, 新昌社.
- 정병학 (1978), 「까닭없이 신바람나던 날」, 『새교실』, 1978년 9월호, p.30.
- 平田宗史 (2007), 「일본의 운동회 역사」, 요시미 순야(편) 이태문(역) 『운동회-근대의 신체』, 논형.
- 許佩賢 (2005), 「教化,競爭與反饋的機關裝置-公學校的運動會」, 『殖民地臺灣的近代學校』, 臺北: 遠流出版公司.
- 京城女子公立普通學校 (1931), 「本校に於ける運動會」, 『朝鮮の教育研究』, 第四卷第九號, 九月號, pp.65-75.
- 金村明吉 (1941), 「戰力增強を主とせる運動會演技種目の研究」, 『國民學校』, 朝鮮公民教育會, 第十卷第一號, pp.53-56.
- 山本信良, 今野敏彦 (1973), 『近代教育の天皇制イデオロギー-明治期學校行事の考察』, 東京:新泉社
- 山本信良, 今野敏彦 (1976), 『大正・昭和教育の天皇制イデオロギー-I]- 學校行事の宗教的性格』, 東京:新泉社.
- 山本信良, 今野敏彦 (1977), 『大正・昭和教育の天皇制イデオロギー-II]- 學校行事の軍事的擬似自治的性格』, 東京:新泉社.
- 吳成哲 (2008), 「朝鮮の植民地學校の規律とナショナリズム」, 『東アジア研究』, 大阪經濟法科大學, 제49호, pp.59-71.

伊藤博文 (1908), 「伊藤統監訓示演說」, 渡部學·阿部洋(編),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第63卷, 東京:龍溪書舎.

編輯部 (1935), 「運動会に関する座談会」, 『朝鮮の教育研究』, 第百八號, 九月號, pp.77-91.

學部 (1910), 「韓國教育ノ現状」, 渡部學·阿部洋(編),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第63卷, 東京:龍溪書舎.

* 논문접수 2011년 2월 1일 / 1차 심사 2011년 3월 7일 / 게재승인 2011년 3월 10일

* 오성철(吳成哲, Oh, SeongCheol):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사회학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아시아 근대교육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교육과학사, 2000) 그리고 역서로는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고마고케 다케시 저, 공역, 역사비평사, 2009) 등이 있다.

* E-mail : cheol@snue.ac.kr

Abstract

Memories of Athletic Meeting in Primary School in Korea

Oh, SeongCheol*

In Korea, athletic meeting in primary school had dual faces or characteristics. Those dual characteristics have been made within the socio-historical contexts of modern state education.

According to the aspects of post-modern social science, athletic meeting is one of educational discipline devices by which state apparatuses intend to interpellate individuals into nations. Using athletic meetings in school, nation-states have tried to make new subjects=nations. This is one face of athletic meeting grasped from above.

But, at the same time, athletic meetings also have another face. In memories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athletic meetings, they took quite different emotional contents or characteristics from those discipline devices. In their memories, athletic meeting was one of the happiest events during school years and a kind of jolly festivals rather than discipline-oriented educational activities. Within the memories of peoples, we can identify some elements of nostalgias toward extended families and rural communities in which they had once lived or relatively egalitarian and non-individualistic, non-meritocratic life-world which has been at last abolished or weakened during modernization process. These are so-called dual faces of athletic meetings in histories of Korean or Asian modern educations.

keywords: athletic meetings, memories, state apparatuses, school-discipline, modern education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